

독립정신

최근에 이르러 일본의 '거품'이 빠지고 한국이 정치·경제·문화·IT산업·군사력에 이르기까지 역전 현상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반한·혐한에 이어 적대 현상이 노골화되고 있다. 패전 이후에도 버리지 않았던 우월감과 지배 의식으로 깔보던 심리가 '추락의 시대'에 이르자 국제무대에서 뒤편을 노릇을 하고, 각종 교과서에 고유의 한국 영토인 독도를 자국령으로 표기하는 등 날선 도발을 일삼는다. 향후 무슨 짓을 할지 우려된다.

- 머릿글에서



후손에게 극심한 갈등을 물려줄 겁니까?

“전쟁의 참화는 100년으로 안 끝납니다.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새 우파들이 안보, 안보 하는데, 국론을 통일해야 해요. 그게 국력을 튼튼히 하는 길입니다. 나는 국가지도자도 아니고 나이만 먹었을 뿐인데, 국론 분열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자기 주장만 해요. 되도록 참아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도 배려하고, 국론이 이렇듯 극렬하게 갈라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권두 인터뷰 : 조세현 전 의병정신선양중앙회 부회장

특집 '기억, 1923'	6
조선인학살, 진상규명과 추모운동에 나섭니다	
젊은 르포	21
“불령선인의 명령이다. 우릴 사형하라!”	
청년에게 듣는다	30
독립정신에 걸맞은 효창원 논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의 자주독립정신과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원희복
편집위원 | 곽태원, 박덕진, 권혁주, 이상혁
편집·디자인 | 대관인쇄

우 03173 / 서울특별시 중로구 새문안로 5길 19 로얄빌딩 602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7837@daum.net
홈페이지 : kopogo.kr

- 03 이 달의 독립운동_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처단(1909.10.26) | 편집부
- 04 머릿글_ 일본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추모사업에 나서기를 | 김삼웅
- 06 기억, 1923_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진상규명·추모운동을 시작합니다” | 박덕진
- 09 광고_ “광복 76주년, 친일파는 건재하다” | 편집부
- 10 기억, 1923_ 일본에서의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진상규명 및 추모운동 | 이규수
- 12 권두 인터뷰_ “후손에게 극심한 갈등을 물려줄 겁니까?” | 편집부
- 16 국정원 톨아보기_ 국정원, 일본 극우세력 지원? | 편집부
- 18 광복절 기념사_ ‘담대함’ 사라진 문 대통령의 8·15 기념사 | 원희복
- 21 젊은 르포_ “불령선인의 명령이다. 우릴 사형하라!” | 김수빈
- 24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_ 인물로 보는 함양 독립운동사 개관 | 편집부
- 28 임정서거_ 『여성독립운동가 열전(근대한국학 대중 총서 4)』
『몽우리돌의 바다』
『하란사』
『한국독립운동과 동아시아 연대』 | 편집부
- 30 청년에게 듣는다_ 독립정신에 걸맞은 효창원 논의가 필요하다 | 최범준
- 33 독립정신 이모저모_ | 편집부
- 36 서대문형무소_ 차병혁의 3·1운동과 서대문형무소 수감 | 편집부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 처단(1909.10.26)



家溝)역과 하얼빈역에서 그를 처단할 계획을 세운다. 여기서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를 처단하기로 결정했다. 채가구역에서 우덕순과 조도선을 수상하게 여긴 러시아 군인에 의해 실패하고 이토는 그대로 하얼빈을 향해 갔다.

10월 26일 오전 9시, 이토가 탄 기차가 하얼빈역에 도착했다. 이토는 열차 안에서 러시아 재무대신과 회담을 가지고 9시 30분경 러시아 군대의 사열을 받기 위해 열차에서 내렸다. 열차에서 내린 이토를 본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탄 3발을 발사했다. 3발이 모두 명중하여 이토 히로부미는 쓰러졌다. 안중근 의사는 체포당하면서 “꼬레아 우라!(한국 만세!) 꼬레아 우라!”라고 외쳤다.

총에 맞은 이토 히로부미는 다시 열차 내로 옮겨졌으나 사망해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성공하게 되었다. 이 의거로 안중근 의사는 뤼순 감옥에 투옥되었고, 1910년 2월 14일 사형 선고 받고, 3월 26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안중근 의사는 재판과정에서 일제에 굴하지 않고 이토를 처단한 이유 15가지를 당당하게 밝혔다. 안중근 의사의 이토 처단은 이후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의거로 평가받는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러시아와 회담을 위해 하얼빈에 오게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제의 한국 침략의 핵심인물로서 을사늑약, 고종의 강제 퇴위 등을 주도하며 민족의 원수로 있었다. 을사늑약 이후 그는 조선통감부의 초대 통감으로 한국의 식민지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는 민족의 원수 그 자체였다.

대한의군 참모총장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사의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동지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와 함께 거사를 준비한다.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으로 가는 길인 채가구(蔡

일본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추모사업에 나서기를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개인이나 국가나 좋은 이웃을 만나 화목하게 사는 것은 축복이다. 선린(善隣)이란 말은 그래서 생긴 용어이다. 선린외교나 선린정책은 이웃나라와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외교이고 정책을 말한다.

삼국시대 해안은 물론

내륙 깊숙까지 물려와 분탕질을 일삼던 왜구로부터 임진·정유왜란, 동학농민과 의병학살, 경술국치로 이어지는 일제의 침략 만행은 끝이 없었다. 우리에게 그들은 항상 '선린'은커녕 도적이었다. 오죽하면 단재 신채호선생이 '조선혁명선언'(의열단선언)의 서두에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토를 없이하여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에 대한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고 썼겠는가.

최근에 이르러 일본의 '거품'이 빠지고 한국이 정치·경제·문화·IT산업·군사력에 이르기까지 역전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반한·혐한에 이어 적대 현상이 노골화되고 있다. 패전 이후에도 버리지 않았던 우월감과 지배의식으로 깔보던 심리가 '추락의 시대'에 이르자 국제무대에서

휘방꾼 노릇을 하고, 각종 교과서에 고유의 한국 영토인 독도를 자국령으로 표기하는 등 날선 도발을 일삼는다. 향후 무슨 짓을 할지 우려된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폴란드 아우슈비치 현관에 쓰인 조지 산타야나의 경구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의 한 가닥은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지방에 일어난 대지진 당시 일본(정부)이 제일동포 6,661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간토지방에 일어난 대지진은 순식간에 시즈오카, 야마나시로 파급되었다. 도시는 삼시간에 불바다가 되고 해안에는 해일이 몰아쳐 수많은 건물이 쓰러지고 수십만의 인명이 부상했으며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전신·전화·철도를 비롯하여 전기·가스·수도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문화시설이 파괴되었으며, 학교나 병원도 대부분 쓰러져 가히 생지옥이었다.

이런 와중에 일본 군부와 경찰은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이 각처에서 방화와 폭동을 일으키고 부녀자를 강간하였으며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퍼뜨렸다. 대지진으로 치안이 무너진 상태에서 폭동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는 국민의 관심을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에게로 돌리게 하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

다. 마치 로마의 대화재 당시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의 혐의를 씌우고 그들을 학살한 정황과 비슷하였다.

유언비어 조작과 유포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인 9월 1일 오후 일본 경시청은 정부에 진재 현장에 출병을 요청하고 계엄령을 준비했다.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지낸 내무대신 미즈노 젠타로와 경시총감 아카이케는 늦은 밤 도쿄시내를 돌아보고 다음날 도쿄와 가나가와현 경찰서 및 경비대에 "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했다. 이들은 '폭동'에 대한 전문을 만들어 내무성 정보국장 고토의 명의로 전국의 지방장관에게 타전했다.

이렇게 하여 일본의 경찰·군부·우익세력이 총동원되고 이른바 '자경단'을 조직하여 "조선인은 모조리 죽여라"는 구호 아래 대대적인 학살극을 벌였다. 일본 신문들은 유언비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여 조선인 학살을 부채질하였다.

재일조선유학생회는 1924년 1월 대표 김건(金健)의 명의로 <도쿄진재 한인학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중 학살내용의 일부를 발췌한다.

“하동(河東) 광장에 한인을 다수 포집하여 기천기백인을 한꺼번에 총으로 난사하고 병영 또는 경찰서 구내에 기백기십인을 집합시켜 살해하였다. 더구나 노상에서 보는 대로 병력 내지 경찰관이 총살한

것은 물론 보통의 살인수단이라고 할 수 없게 소위 자경단, 청년단 등은 '조선인'이라고 외쳐부르는 한마디에 백이 응하여 낭(狼)의 군(群)과 같이 동서남북에서 물려와 1명의 동포를 수십인이 달라붙어 검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쓰러뜨리고 그 위에 죽은 사람의 목을 끌고다니면서 능욕하였다. 몸을 전신주에 묶고 처음 눈알을 도려내고 코를 찢어 그 애통한 광경을 충분히 구경한 후에 배를 찢어 죽였다. 동네 앞을 흐르는 것은 우리 동포의 선혈이고 이곳저곳에 흐트러진 것은 우리 동포의 시체이다. 우리 동포의 시체가 퇴적하여 우전천은 유통도 막혀 동포의 피가 썩는 그 악취는 통행인의 호흡이 막힐 정도였다.”

이같은 만행을 저지르고도 일본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1965년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회담 과정에서도 언급 없이 넘어갔다. 9월 1일을 법정추모일로 정해서 100년 동안 구천을 떠도는 원혼들을 달래고, 유언이 정한 제노사이드 정신을 받들어 진상규명과 추모사업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길 촉구한다.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진상규명 및 추모운동을 시작합니다”

박 덕 진
(시민모임 독립) 상임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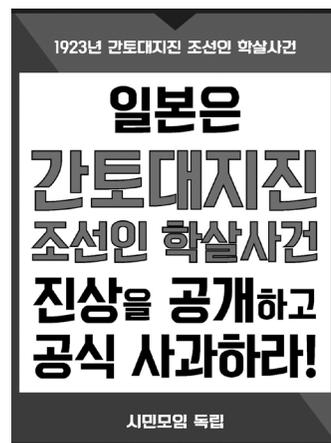
9월 1일은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 98주기가 되는 날이다. 100주기를 불과 2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역사적 비극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억은 민망한 수준이다. 1923년 도쿄 YMCA 총무로서 천도교 청년회와 함께 이재동포위문반(罹災同胞慰問班)을 조직해 희생자 확인에 나섰던 고 최승만 선생은 《나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내가 도쿄에 있을 때에 매년 9월 1일이 되면 잊지 않고 추도식을 유학생과 더불어 했다. 1934년 귀국해서 보니 9월 1일이 되어도 신문이나 잡지나 어떤 단체나 학살사건을 말하는 데가 하나도 없었다. 1982년, 그러니까 59년 만에야 비로소 추도회도 하고 신문에서 떠들기 시작하였다. 무관심이라고 할까. 알지 못해서 그랬을까. 이런 큰 사건을 모르고 지냈다면 이에서 더 큰 과오가 어디 있을까.”

일본 정부는 물론, 해방 이후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 한국 국회도 무책임하

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2014년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의원 103명 명의로 발의되었다가 회기만으로 폐기된 이후, 지금까지 국회는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사건의 진상규명과 추모노력은 재일조선인과 양심적 일본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1964년 강덕상과 금병동이 편찬한 《간토대지진과 조선인》이 출간되었고, 일조협회는 1963년 ‘일조협회 조선인희생자조사위령특별위원회’를 조직했다. 1970년대부터 치바현 조사가, 1973년에



릴레이 1인시위 피켓

는 도쿄와 사이타마현 목격자증언이 발행됐다. 1973년 요코야미초 공원에서 공식 추모행사가 열리기 시작했다. 2003년 일본변호사연합회는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은 일본정부 책임이라며 고이즈미 당시 총리에게 사죄와 진상규명을 권고했다.

올해 9월 1일에도 일조협회가 주관하는 도쿄 요코야미초 공원 추도식을 중심으로 사이타마현 추도식, 한국YMCA 추도식 등이 열릴 예정이다. 4일에는 가나가와현 추도식, 아라카와 하천부지 추도식이, 5일에는 치바현 추도식이 열린다. 5일 오전 10시 추도식이 열리는 치바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자 위령비는 해방 후 재일조선인들이 직접 유골을 발굴하고 세운 추도비이다. 오후 2시에는 다카즈 관음사 보화종루 앞에서 추도식이 열린다. 11일에는 군마현 후지오카시 성도사에서 조선인 희생자 위령제가 열릴 예정이다.

〈시민모임 독립〉은 ‘기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98년 전 조선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야만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과 한국이 함께 기억하자는 것이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억울한 죽음들을 역사적으로 기억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모임 독립〉은 더 이상의 지체된 정의를 거부한다. 간토 조선인 학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한다. 진실이 드러날 때에야 정의로운 해결이 가능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진정한 화해와 상생도 이루어진다.

또한 〈시민모임 독립〉은 연대를 희망한다. 양심적이며 평화를 애호하는 일본과 한국 시민사

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런 연대는 호혜와 평화에 입각한 한일 관계 정상화와 동아시아 평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지난 7월 26일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김자동 대한국민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 박만규 홍사단 이사장, 송인동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 이만열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이종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 임재경 대한국민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차영조 독립유공자유족회 부회장,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이상 가나다순) 등 17명의 시민사회 인사들은 성명서를 발표해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과 추모사업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은 일본정부가 촉발하고, 조선인에 대한 혐오가 투영된 명백한 제노사이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그동안 진상 공개와 공식사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정부와 국회도 진상규명과 추모사업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하며 2023년 100주기를 앞두고 진상규명과 추모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일본어와 영어로 번역되어 일본 시민사회와 언론에 배포됐다.

이 성명에 이어 조직된 것이 일본대사관 앞 1인 시위였다.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이 자원한 1인 시위는 일본정부의 진상공개와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이만열 〈시민모임 독

립) 이사장이 테이프를 끊은 1인 시위에 김정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과 이재선 천도교 청년회장이 참여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희생자 파악에 나선 것이 도쿄 천도교 청년회와 YMCA였기 때문이다. 두 단체는 사건 이후 희생자 추모식을 진행했다. 1인 시위는 조용하지만 묵직한 울림으로 일본대사관 앞을 채웠다.

〈시민모임 독립〉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내 추도식에 한국 시민단체로서 추도문을 보낸다. 일본 언론에도 배포되는 추도문을 통해 용서와 화해, 호혜와 평화에 입각한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연대 의지를 전한다.

진상규명과 추모 사업을 향한 활동은 시민사회 조직과 언론홍보, 그리고 국회 차원 활동의 삼각구조를 이룬다. 국회 우원식·민형배·서동용



이만열 숙대 명예교수가 릴레이 1인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의원은 9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술토론회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대역사건'〉을 공동주최한다. 대역사건 관련자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후세 다쓰지 등 독립운동 서훈자들의 활동과 학살 사건의 관계를 파악, 사건의 의미를 확장한다. 세 의원은 아울러 사건 발생일 9월 1일을 국가추모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

〈기억, 1923〉 유튜브 경진대회도 준비한다. 학술토론회 자료와 관련 웹툰을 자료로 참가자들이 5분 정도의 영상물을 제작, 출품하는 경진 대회는 11월경에 진행할 예정이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10만 청원이나 청와대 20만 청원도 염두에 두고 있다. 2023년 100주기 이전에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고 판단한다.

기억의 효용은 증오와 적대가 아니다. 선린과 호혜, 평화를 향한 관문으로서 기억은 존재한다. 그런 면에서 최근 일본에서 확산되는 '역사부정'은 우려스럽다. 6천 명 조선인 희생자는 과장이며, 설사 조선인이 죽었어도 그것은 일본인의 정당방위였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극우로 치닫는 일본 사회와 궤를 같이하는 강변이다. 야만의 식민지배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선린과 호혜, 평화를 향한 길은 멀게만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외로움 속에서 꾸준히 진상규명과 추모 사업을 전개한 재일조선인과 양심적 일본 시민 운동은 우리의 어깨를 내리치는 죽비다. 우리가 1923년 9월 1일을 기억하는 이유다. 

“광복 76주년, 친일파는 건재하다” 박시백 역사만화 〈친일파 열전〉 발간

〈친일파 열전〉이 만화로 나왔다. 지난 8월 9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창립 30주년과 광복 76주년을 맞아 박시백 작가의 역사만화 〈친일파 열전〉(비아북 퍼냄)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그동안 〈각시탈〉 등 독립운동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친일파 단죄 만화는 있었지만, 친일파 청산만 전문으로 다룬 만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책에는 외교권을 빼앗겼던 강화도조약에서 해방까지 나라를 팔아먹은 대한제국 관료와 외교관을 비롯해, 경찰과 밀정, 언론 문학계 등 유명인사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이완용은 물론 군인 백선엽, 〈동아일보〉 김성수, 〈조선일보〉 방응모, 대통령을 지낸 박정희와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등도 등장한다.

책 말미에 시기별 부문별 대표 친일파 153명을 요약 정리했다. 이 중에는 친일인명사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들이 다시 논란이 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작가는 “이미 친일행위가 입증된 이상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화가 박시백 작가는 일제강점기 역사를 만화로 그린 〈35년〉(전 7권)으로 지난해 제14회 임종국상을 받았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창작을 통해 역

사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노고와 도전정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친일파 열전〉을 낸 박 작가는 “항일투쟁의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던 반면, 친일파 부역의 길은 안락과 영화의 길이였다. 후자처럼 사는 게 역사에서 얻는 지혜가 되어 버린다면 역사를 배우는 것은 너무 참담한 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흔히 ‘살아남기 위해 친일을 했다’라고 뭉뚱그려 면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친일파의 행위 하나하나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사지로 내몬 역사의 비극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는 “해방된 후에도 친일파는 청산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혈연적, 사상적 후예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제주에서 태어난 박시백 작가는 〈한겨레〉 만평으로 데뷔. 시사만화 ‘박시백의 그림세상’으로 이름을 알렸다. 신문사를 떠나 12년 만에 〈조선왕조실록〉 20권을 그려냈다. 이 만화는 ‘대한민국 만화대상’을 받았다.

이 책은 아직 서점에서 공식 판매되기 전이지만, 벌써부터 역사 분야 1위에 올랐다고 한다. 이 책 인세 일부는 친일문제 연구에 쓰일 예정이다. 광복절을 맞아 자녀에게 추천할 만한 책이다. 

일본에서의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진상규명 및 추모운동



이 규수
일본 히토쓰바시대학
한국학연구센터 교수

2023년 9월 1일은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다. 100년을 되새기는 일은 단지 숫자만을 기억하자는 이벤트가 아니다. 일본 정부에 무리한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정치적 논란을 일으켜 일본을 궁지에 내몰자는 것도 아니다. '학살'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직시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야만'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기억하자는 것이다. 100년을 맞이하여 조선인학살의 진상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재인식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절실하다.

재일조선인을 중심으로 학살의 진상을 밝히려는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것은 일본 사회에서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차별과 배외주의를 뛰어넘어 스스로의 역사를 복원하는 과정이었다. 숨겨진 자료의 발굴, 학살의 실태조사와 유골의 발굴, 추모사업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려는 눈물겨운 노력도 이루어졌다. 재일조선인을 중심으로 양심적인 일본인 연구자와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간토대

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의 진상이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조선인학살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40년을 맞이한 1963년 무렵이었다. 먼저 자료집으로는 강덕상(姜德相)과 금병동(琴秉洞)이 편찬한 <간토대지진과 조선인>과 조선대학교가 편찬한 <간토대지진에서의 조선인학살의 진상과 실태>가 간행되었다. 이들 자료집은 재일조선인의 노력과 끈기로 이루어진 소중한 성과로 일본 사회에 조선인학살의 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강덕상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시무(時務)', 즉 역사가로서의 시대의 책무였다.

자료집을 토대로 학살의 실태를 밝히는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축이 된 연구자는 강덕상이었다. 그는 "조선인학살은 일본 관민일체의 범죄이고, 민중이 동원되어 직접 학살에 가담한 민족적 범죄이자 국제문제이다"며, 조선인학살의 기본적 성격을 지적했다. 간토대지진 당시 왜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대가 출동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엄령이라는 것을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사와 분리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인학살은 계엄령 아래 자행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제시한 것이다.

조선인의 체험담과 목격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활동도 이루어졌다. 이를 주도한 것은 일조협회(日朝協會)였다. 1963년에는 '일조협회 조선인희생자 조사위령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간토 일원의 실지를 조사했다. 1973년에는 도쿄와 사이타마현(埼玉縣)에서 학살의 목격자를 취재한 기록을 간행했다. 치바현(千葉県)에서도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선인의 유골을 발굴하고 추모하는 모임'과 관련 시민단체 등은 각종 조사보고서를 간행했다. 조선인학살의 실태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진상규명과 추모운동의 성과는 공식적인 추도식 행사로 이어졌다. 간토대지진 50년째가 되던 1973년 도쿄도의회는 찬성으로 '위령공원'으로 불리는 스미다구 요코야미초(横綱町) 공원에서 공식적으로 추모행사가 열리기 시작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자 추도비'가 세워졌고, 비석에는 "아시아의 평화를 만든다"는 글귀가 새겨졌다. 조선인학살을 밝히려는 재일조선인과 일본 시민단체의 소중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최근 일본에서는 운동의 성과를 무력화시키려는 돌출행동이 활발해졌다. 역사부정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그들은 간토대지진 당시 6천명이라는 조선인희생자는 과장된 것이고, 설령 조선인이 살해당했어도 정당한 방어행위였다고 강변한다. 이를 반영해 도쿄도지사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는 2017년부터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자 추도식전'에 추도사를 보내는 것도 거부했다. 이런 움직임은 간토대지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식민지배 전체를 부정하는 네오내셔널리즘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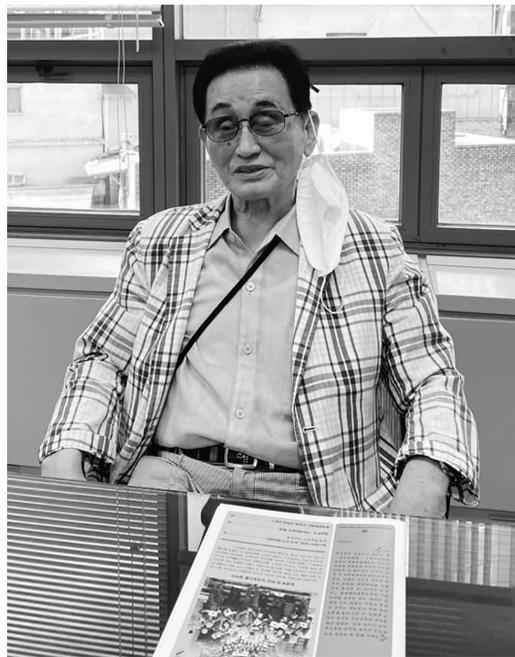
조선인학살 문제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 문제를 피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동시에 조선민중의 해방투쟁과 분리하고서는 역사적 자리매김이 어렵다. 학살과 식민지배, 민족해방투쟁의 고양은 명확한 인과관계로 결합된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사건은 1905년 이후의 식민지배와 이를 보완한 일본민중이 강력한 적, 조선민중을 두려워한 것에서 발생한 집단살인이자 민족범죄였다. 한일 간의 부조리한 관계 속에서 필연적으로 돌출한 또 하나의 잔혹한 사건이었다.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100년을 맞이하여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연구의 심화와 함께 다양한 활동이 요청된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일 간의 역사문제를 어떻게 청산할 수 있을까? 조선인학살이라는 야만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후대에게 전승할 것인가? 해방 이후 한국 정부는 조선인학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거나 일본 정부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조선인학살 문제에 대해 외롭지만 꾸준하고 힘 있게 문제를 제기해 온 재일조선인과 양심적인 일본인의 운동을 거울삼아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1923년 9월 1일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자세가 한일연대의 기반이다. 조선인학살의 실태와 기억을 사회화시키고 전승하는 일이 간토대지진 100년을 맞이하는 출발점이다.

“후손에게 극심한 갈등을 물려줄 겁니까?”

조세현 전 의병정신선양중앙회 부회장 인터뷰

편집부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했다.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얘기는 가급적 줄이시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국내외가 엄중한 상태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민족정기를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세태는 어떤가. 매사 아전인수 격으로 갖다 붙이고, 논리도 없다. 지도자들의 언행은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데, 특히 정치인들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한다...

“갈등과 분열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한쪽에서 ‘친일파’ 얘기를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빨갱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결국 평행선을 걷고 있어요. 한없이 그러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되도록 ‘친일파’ 얘기도 축소하고, ‘빨갱이’ 얘기도 축소해야 합니다.

조세현 본회 이사는 ‘어등산 최후의 의병장’ 대천(大川) 조경환(曹京煥, 1876~1909) 의병장의 손자다. 사단법인 의병정신선양중앙회 부회장을 역임했고,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감사로 순국선열을 기리는 사업에 힘썼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발족 당시 초대 감사로 참여했고, 현재 이사를 맡고 있다. 조 전 부회장은 인

그래야 의견이 접근되고, 국론이 통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일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느냐, 반복적으로 했느냐, 장기간 했느냐 여부로 친일파를 판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용서할 줄도 아는 현명함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 전 부회장은 친구들과 만나면 “우리는 그래도 괜찮았다”며 서로 위로한다. 경제가 계속 성장했던 덕분에 먹고살 수 있었고 돈도 모을 수 있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당신들보다도 못 사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다.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키워서 늙으면 봉양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며 살아왔는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부모가 축적한 재산을 자식에게 나눠줘야 하는 사회가 됐다. 조 전 부회장은 기성세대가 우리 사회를 직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무슨 일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추상적으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좌파들’은 ‘우파들’ 보고 ‘친일정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파들’은 ‘좌파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빨갱이정권’이라고 한다고요. 서슴없이 그래요. 미래세대에 갈등과 분열을 유산으로 넘겨주겠다는 겁니까? 우리 세대가 조금이나마 봉합을 해서 해결의 실마리라도 찾아야 하는데...”

인터뷰를 하던 날 아침,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 항복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조 전 부회

장의 가족은 3대가 전쟁을 겪었다.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러했을 터이나, 이 집안의 사연은 더 역사적이다. 조부께서 의병장으로서 독립전쟁에서 전사하셨고, 조모께서는 동란의 아비규환 속에서 이념 대결에 휩쓸려 무참하게 돌아가셨다. 남은 가족들은 귀 막고, 입 닫고 살아야 했다.

“전쟁의 참화는 100년으로 안 끝납니다. 전쟁은 없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요새 우파들이 안보, 안보 하는데, 국론을 통일해야 해요. 그게 국력을 튼튼히 하는 길입니다. 나는 국가지도자도 아니고 나이만 먹었을 뿐인데, 국론 분열이 너무 심합니다. 너무 자기 주장만 해요. 되도록 참아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도 배려하고, 국론이 이렇듯 극렬하게 갈라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과거지향적인 언행을 줄이고 미래지향적인 모멘텀을 만드는 게 지도층이나 연장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 참아야 할 때다. “입만 열면 상처를 키우고 오히려 부스럼을 만드는 일은 제발 좀 하지 말자”고, 조 전 부회장은 거듭 강조했다.

“우리 나이가 지금...”

조 전 부회장은 순국선열을 선양하는 단체들이 늘어가서 걱정이라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광복절이 벌써 76주년이다. 그러나 조 전 부회장의 말씀은 단지 물리적인 나이의 문제만을 가리키는 건 아닌 듯했다.

“나도 그렇지만, 모두 80대, 90대 노인들이더라고요. 자꾸 옛날얘기만 합니다. 노인들끼리 있어서 노인들 이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 전 부회장은 박덕진 <독립정신> 편집위원이 몇 년 전 임정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을 맡았을 때 앞으로 젊은 사람들과 대화하라고, 어떻게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지 고민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한다. 그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념사업회 내에 청년위원회가 발족했다. 조 전 부회장은 임정기념사업회가 백년 전에 있었던 임시정부와 오늘을 잇는 가교(架橋)가 되기를 바란다.

“이 기회에 ‘순국선열’ 네 글자를 다시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순국(殉國)’의 순(殉) 자는 뼈알(歹) 변에 가득할 순(旬)으로, 이를 합하면 구할 순(殉), 즉 뼈가 가득할 정도로 나라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목숨을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순국이란 의미가 그러할진대 오늘날 ‘순국’이라는 용어를 남용하거나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위선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조 전 부회장이 안중근 의사에게 올린 <백년편지>의 한 구절이다. 이처럼 순국이란 우리 민족

에게는 성스러운 두 글자일진대, 순국을 입에 올리려면 무엇보다 겸손하고 과묵해야 한다. 민족정기를 세워야 한다며 ‘나’와 ‘내 주장’을 앞세우려 하면, 순국의 의미는 퇴색한다. 지금 젊은이들이 가득이나 힘들고 위축된 터에, 앞선 세대가 서로 핏대를 세우고 손가락질하면 다음 세대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다. 민족정기는 계승되기는커녕 단절된다. 조 전 부회장은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 전 부회장 세대만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해방 후 우리 역사도 나이를 먹고 있다.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을 괴롭힌 모순들이 아무리 많이 중첩됐다 해도, 반만년 역사에서 76년은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인간은 늙지만, 역사는 늙으면 안 된다. 시간관념을 바로잡아야 한다. 해방된 지 겨우 76년이 됐을 뿐인데, 공동체가 안에서 다투느라 피곤해져 역사가 ‘조로증’에 빠진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어렸을 적에는 할아버지께서 의병장이신지도 몰랐어요. 독립운동한 집안이 다 그럴 겁니다만, 왜놈에게 항거했다는 얘기는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꼭꼭 숨겨두었던 오래된 신문, 할아버지 이야기가 실린 <대한매일신보> 두 장을 꺼내주셨습니다. 그 두 장을 바탕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자는 마음으로요.”

“상처가 아물도록 애써야”

“이번에 대통령후보 한 사람이 ‘헌법적 가치를 가장 잘 지킨 사람이 이승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헌법적 가치가 뭐니까? 부정선거 해서 쫓겨난 반헌법 범죄자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정부 고위직에 임명한 대통령은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국가지도자가 되더라도, 국가관, 역사관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조 전 부회장이 말하는 국가관은 첫째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 ‘애고’로 변질하지 않으려면, 우리 민족이 걸어온 역사의 맥락을 알아야 한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공과(功過)를 제대로 구분하고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이해에 맞춰 건강부회(牽強附會)·침소봉대(針小棒大)·번문욕례(繁文縟禮)로 역사를 비트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역사의 유산은 초라하고 강박한 허장성세(虛張聲勢)가 될 수밖에 없다.

– 그런데 선생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가관을 대체 무슨 수로 검증하겠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는데요….

“(하도 답답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앞으로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답변서를 받아서 정부 기록으로 보관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걸 갖고 있어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쟁에 휘말리지 않는) 국가관이 정립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국가에서 보훈 혜택을 받는 보훈 대상자는 약 80만 명이다. 정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분은 1만2천 명인데, 보훈 혜택을 받는 유족은 8천 명, 전체 보훈 수혜자의 1%에 불과하다. 국가유공자단체 설립법에 따르면, 의전 서열 1번은 상이군인회, 2번은 그 유자녀회, 3번은 그 미망인회이고, 4번이 광복회라고 한다. 이를 바로잡겠다고 조 전 부회장이 수십년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지만, 요지부동이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정부가 안 찾아요, 몹시 소홀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걸 바로잡는 노력은 하지 않고… 1%가 합심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팔순인데, 답답해요.”

인터뷰 다음 날, 조 전 부회장은 전화를 걸어와 이 말을 인터뷰에 꼭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민족정기, 핏대 올리지 않아도 선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핏대 올리는 건 선양이 아닙니다. 안팎 상황이 엄중합니다. 이런 때 되도록 상처를 아물게 해서,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게 평소 내 지론입니다.”

국정원, 일본 극우세력 지원? 친일청산 시민단체 압박 ... MBC <PD수첩> 폭로

편집부



8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일본 혐한 극우 지원 국가정보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했다는 MBC <PD수첩> 보도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물론,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다.

<PD수첩>은 국정원이 국내 독도수호와 위안부 활동가 정보를 일본 국가기본문제연구소(국기련)를 통해 일본 극우세력에 전달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국기련 이사장 사쿠라이 요시코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8월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기관마저 반민족적인 친일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2015년 박근혜 정부의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합의도 일본 극우세력을 등에 업고 일본이 그린 그림에 따라 진행된 야합의 결과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개탄했다.

민간차원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참여연대를 비롯해 민족문제연구소, 겨레하나, 한국진보연대 등

일본 극우인사로 아베 전 일본 총리 측근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PD수첩>은 또 국정원은 일본 극우세력을 서울 국정원에 초대해 대북정보를 설명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의 직접 증언에 의하면 퇴직한 국정원 직원을 통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했다는

72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정원 감시네트워크’는 정부에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정원 공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정부와 국정원에 엄중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PD수첩> 보도를 뒷받침하는 자신의 경험을 폭로했다. 윤 의원은 “2012년 히로시마에서 새로운 연대 단체가 출범식에 참석하는데 공항에서 제 여권을 보자마자 짐 수색을 하면서 달리, 마약, 총기류가 있느냐는 취조를 받았다”면서, “그것도 국정원의 공작으로 일본이 내통해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PD수첩>은 ‘일본 공항에서 윤미향의 ‘빤스’까지 벗기라’는 저급한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억이 다시 불쾌감과 모욕감으로 채웠다”고 치를 떨었다. 그는 또 “한 후원자가 주일한국대사관 관계자로부터 정대협 돕는 것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윤미향 남편은 간첩이고, (정대협을) 계속 도와주면 한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몰수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명준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은 일본에서 벌어지는 실태를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조선국적(남북분단 전 국적) 동포를 상대로 끊임없이 한국국적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 국정원 방침”이라며,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조총련 경력,

북한 방문 경력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북한 및 해외 거주 가족 다 쓰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협찬광풍을 선동하고 역사부정론을 조장하는 일본 극우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재일동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는 매국행위이며, 이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는 세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에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이뤄지고 있다. 9월 8일까지 계속되는 이 국민청원에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광화문광장에서 어린 우리 국민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일본의 과거사 반성을 촉구하고,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재판으로 세월을 보내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억울한 인생을 마감할 때, 이들이 벌인 짓을 어찌 용서할 수 있는가”라며, “국민들에게 이 불법공작의 진상을 철저히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중죄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문제의 일본 우익단체 국기연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쿠라이 요시코 이사장 명의로 한국 국정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해명서를 올렸다. 사쿠라이 이사장은 항의문에서 “국정원을 포함해 어떤 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MBC 일련의 보도는 명예훼손으로 단호히 항의하고 사죄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담대함’ 사라진 문 대통령의 8·15 기념사



원희복
본지 편집인

제76주년 광복절을 지나고 있다. 이번 광복절에는 흥범도 장군의 유해가 돌아오는 뜻깊은 행사도 같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전용기로 운구되는 흥범도 장군의 유해를 직접 영접했다. 흥범도 장군은 대한 독립군 사령관으로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 말년에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의 정신적 지주가 됐던 ‘위인’이다.

그러나 고향이 이북 평양인 흥범도 장군이 친 일파와 나란히 대전 현충원에 묻히는 것은 유감이다. 본지가 주창했던,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안에 가칭 평화공원을 만들어 남북이 같이 추념하자는 제안이 성사되지 않은 안타까움도 있다. 흥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은 딱 막힌 남북 상황에서 대화의 물꼬를 틀 좋은 소재였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따라서 흥범도 장군의 현충원 안장은 ‘임시’이고, 중국에는 DMZ 안에 평화공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믿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광복 76년 성과를 선열에게 보고했다. 그것은 높은 교육열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자주국방, 그리고 백범이 꿈꾼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에 걸맞

게 BTS와 영화 <기생충>이 세계를 석권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선진국’으로 규정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보고했다. 물론 이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우리가 관심을 가진 대목은 바로 일본과 북측과 관계다. 과거 3·1절 혹은 광복절 기념사는 대통령의 대(對) 일본, 특히 대북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선언을 밝히는 기회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 두 분야는 그동안 노력만큼,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물론 이는 일본이나 북이라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지극히 원론적 입장만 간단히 나타냈다. 이는 더 이상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한일관계를 현 상황에서 관리하겠다는 매우 소극적이면서도 신중한 의지 표시다.

특히 많은 사람은 이번 광복절 축사에서 대북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향적 ‘성명’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라며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독일모델’을

만들었다”고 독일통일의 예를 들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이라며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 역시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이다. 적잖은 남북 친서 교환에 이은 남북통신선 복원과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한 통신선 재

차 단절이 벌어진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그렇다. 많은 사람이 이 상황을 타개할 담대한 대북독트린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미연합훈련 본훈련 중단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바로 남북기본합의서를 낳았으며, 이는 ‘남북한이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해 공동 합의한 기본 문서’라는 공식 문건에 걸맞



문재인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광복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게 최초의 남북불가침선언이다. 여기에는 남북 내부 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 행위 금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 전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남북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명시된 서로 비방 금지는 대북 뼈라 살포로 개성공단연락사무소가 폐지됐으며, 겨우 이어진 직통전화 역시 한미연합훈련으로 다시 막혀 버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나름의 타개책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것은 무척 아쉬운 일이다.

오히려 같은 날 김원웅 광복회장의 '사이다' 같은 기념사가 훨씬 본질을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다. 이에 야당과 일부 극우 보수인사는 '극도로 편향된 역사관'이라고 역지를 부리지만, 광복 이후 친일잔재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보수도 인정하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를 비난하는 그 세력이 바로 친일세력이다.

우리는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100주년 기념사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촛불정부의 대통령답게 역사혼이 담긴 담대한 기념사였다. 다시 그 기념사를 기억해 보자.

“일제는 독립군을 ‘비적’으로, 독립운동가를 ‘사상범’으로 몰아 탄압했고, 여기서 ‘빨갱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 좌우의 적대, 이념의 낙인은 일제가 민족 사이를 갈라놓으려 사용한 수단이었습니니다. 해방 후에도 친일청산을 가로막는 도구가 됐습니다. 양민학살과 간첩조작, 학생

민주화운동에도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으로 사용됐습니다. (...)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경쟁 세력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빨갱이란 말이 사용되고 있고, 변형된 색깔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우리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할 대표적 친일잔재입니다.”

이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이날 기념사와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매우 정확한 역사 인식으로 진정한 해방의 의미를 일깨운 기념사였다. 그때도 이 기념사에 대해 보수, 극우 언론은 왜곡, 비난하는 보도를 ‘자행’했다. <동아일보> 김순덕은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르지 못하는 나라는 북한과 다름없는 전체주의 국가다”면서 “북한 대변인이라 할 만큼 친북적인 언행과 정책을 보이니 시대착오적인 빨갱이 소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철학을 전공한 윤평중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역사전쟁을 시작했다”고 역지를 부리고, 최장집 전 교수는 “관제 민족주의를 여러 이벤트를 통해 의식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일투쟁과 일제로부터 해방을 기억하고 의식을 추스르는 국가 공식행사 자리의 대통령 기념사를 전체주의니, 역사전쟁, 관제민족주의로 매도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언론의 기본인 사실 보도나 해설 논평 차원에도 못 미치는 역지의 ‘자행’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친일청산을 왜곡된 역사관이라 역지를 부리는 바로 그 세력이 친일잔재들이다. 내년 문 대통령의 마지막 3·1절 기념사를 기대해 본다. 

“불령선인의 명령이다. 우릴 사형하라!”

뮤지컬 <박열>을 보고

김수빈
청년위원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은 누구든 이따금 들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솟구쳐
그것 때문에 얼어 죽지 않고 견뎌냈다,
이런 말이야말로 아마 그 누구도 쉽게
들어보질 못했을 것이다.”*

백기완, <버선발 이야기>

인간으로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조롱할 거대한 권력을 만났을 때, 사람은 뜨거운 분노와 함께 어찌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를 때가 있다. 그렇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뜨거운 눈물로 자기 자신을 데워 살아남은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뜨거운 눈물로 서로를 지켜낸 자들 중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뮤지컬 <박열>은 ‘불령선인 중에 일등 불령선인’으로 불렸던 박열과, 일본인이지만 ‘후테이센진(불령선인)’을 자처하며 ‘천황’ 무용론을 외친 가네코 후미코의 옥중 투쟁기를 다룬다. 핍박받는 약자들, 계급 속에 갇혀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 차별로 자신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한 사회

에 기꺼이 스스로가 폭탄이 되어 멋진 불꽃놀이를 선사하려던 자,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 뮤지컬 <박열>은 불길을 기다리는 폭탄과도 같았던 그들의 삶을 배우들의 호흡으로 멋지게 풀어냈다. 등장인물은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 검사국장인 류지 단 3명이지만, 이야기 전개상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인물 간의 긴밀한 관계와 짜임새 있는 서사로 몰입도를 높인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9분. 도쿄가 무너졌다.”라는 대사로 시작되는 뮤지컬 <박열>은 간토대지진(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진도 7.9의 대지진, 이재민만 340만여 명... 일본 내각은 재난을 수습하기보다 성난 민중을 달래려 음험한 피를 낸다. ‘조선인이 지진을 틈타 우물에 독을 탔다’는 등의 가짜 소문을 조작·유포하고, 군경과 공조한 민간인 자경단을 꾸려 일본에 거주하던 조선인을 6천여 명 이상(당시 독립신문 보도 기준 6,661명) 학살한 사건이 바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이다.

그리고 이 학살사건을 덮기 위한 가짜 소문의 진짜 주인공, ‘후테이센진(불령선인)’의 우두머리를 조작하려는 일제의 속임수가 바로 박열과 가

네코 후미코의 재판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중심에 세워진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억울하다며 움츠러들거나 살고 싶다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억압하는 권력자들의 만행에 더 당당히 맞섰고, 자신들이 추구했던 이상사회로 나아갈 디딤돌로 삼았다.

박열(1902~1974)은 18세의 나이에 일본 도쿄로 건너가 의혈단·흑도회·흑우회·불령사 등의 항일투쟁과 아나키즘 활동을 하며 고학 생활을 했다. 이후 1922년에 가네코 후미코를 만나고 일왕의 폭살을 계획하던 중 간토대지진을 겪은 인물이다.

가네코 후미코(1903~1926)는 일본인으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으며 일본의 계급의식과 군국주의, '천황제'에 상당한 비판의식과 반감을 가진 인물이다. 그가 도쿄의 이와사키 오메집에 근무하고 있을 때 <조선청년>이란 잡지에 박열이 쓴 “나는 개새끼로소이다”라는 시구를 보고 감동하여 함께 사상적으로 교류하는 동지가 된다.

이 둘은 투옥되기 5개월 전인 1923년 4월에 '불령사'라는 대중모임을 조직하여 아나키즘에 대한 강연을 열거나 친일파 기자를 폭행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박열과 불령사 회원인 김중한의 '의혈단 폭탄 반입 시도'였다. 박열은 폭탄으로 권력의 상징인 일본 황태자를 폭살하려 했다. 일제는 미수에 만 그쳤던 이 사건을 '대역죄'로 판을 키워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기소하고, 조선인 학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

하지만 이 의도를 알아챈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이 사건을 자신들의 '축제'이자 '무대'로 치환시켜 간토대지진의 조선인 학살을 낱알이 밝히고, 일본 '천황' 무용론과 자유를 향한 민중의 열망을 연설하는 장소로 활용한다. “조선인 6천 명이 학살됐는데 그 위에서 놀이를 하시겠다?! 광대가 필요하다면, 내 기꺼이 그 광대가 되어주지!”

온당하게 파멸을 기다리는 자 앞에선 그 어떤 철창도, 감옥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 둘이 보여주었다. 판사는 재판장에서 '피고'라는 말 대신 '그대'라는 말을 써야 했고, 박열은 사모관대를, 가네코 후미코는 화려한 치마저고리를 입고 재판장에 입장하였다. 박열은 자신이 이 재판에 응하는 취지서를 낭독하였고, 재판장이 일왕을 대표하는 것과 동등하게 자신도 조선민족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음을 강조하였다.

가네코 후미코는 재판 중에 '천황' 무용론과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민중의 해방에 관해 거침없는 연설을 하였으며, 그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에 관계자들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자신의 직업을 불령업이라 밝힌 박열과 현재에 있는 모든 것을 때려 부수어버리는 것이 직업이라는 가네코 후미코의 인정심문 장면은 매우 인상 깊었다.

하지만 재판장에서 이들이 어떠한 주장을 펼치더라도 이미 '사형'이란 결말이 정해진 재판에서 검사국장인 류지는 박열을 심문하며 이렇게 비아냥거린다. “그래서 정작 네가 한 게 뭐지? 폭탄을 구했나? 뭐가 터졌나? 넌 그냥 불발탄일 뿐

이야.” 이 물음을 받은 박열은 오히려 검사국장에게 묻는다. “그 좋은 옷을 차려입고 그 속은 자유로운가?”라고. 더불어 권위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정당화하기 위해 '천황제'를 신봉할 뿐, '천황'은 신이 아니며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역설한다.

권력은 보상만 주면 노예를 자처하는 이들 때문에 더욱 견고해진다. 우리는 권력으로부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둔갑한 계급의식을 합리적 '체계'라 여기며 자기기만하고, 힘 앞에 매 순간 굴복한다. 참된 체계란 무엇인지 고민해 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휩쓸려간다. 검사국장 류지 역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연극에 세우고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자신하지만, 그들을 여러 차례 심문하며 자신 역시 일본 '천황제'에 얽매인 채 개인의 의지를 조롱당하는 한낱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불령선인의 명령이다. 우릴 사형하라!”

부술 수 없단 것을 알면서도 부딪히는 작은 자기혁명 이야기, 뮤지컬 <박열>. 절망의 필연성을 끌어안고 어떻게 살아내느냐, 그것이 삶의 증명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 아닐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팔시받던 박열, 무적자·여성이라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죽이며 살았던 가네코 후미코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 가슴속에 울림을 주는 이유는 우리도 알 수 없는 힘 앞에 굴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약자'라 불리는 자들이 세상의 폭력에 대해 더욱 예리한 눈을 가지게 된 것을 생존본능이라 여길 수 있지만, 생존본능에서 나온 이 치열함이 권력 앞에 무참히 무너지는 모습은 자꾸만 온건한 입장을 의미 없게 만든다. 그리고 가네코 후미코와 박열처럼 부술 수 없단 걸 알면서도 부딪힌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가슴 속에 품게 된다.

그저 보존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는 가네코 후미코의 말처럼, 부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딪히는 것을 작은 '자기혁명'이라 여긴 박열처럼, 세상이 우릴 힘으로 굴복시키려 해도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라 부르는 소수자들은 과연 소수자(少數者)가 맞는가? 소수자는 다수(多數)이며, 오히려 그 다수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소수자(少數者) 아닌가. 사회가 정해놓은, 어쩌면 권력자들이 힘으로 규정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노력은 부당한 힘과 권력을 얼마나 뒤집어 놓을까?

뮤지컬 <박열>을 관람하는 동안 배우들 너머로 소리치고 싶었다. 그들과 같은 이들 수천, 수만명이 온몸으로 벽을 들이받은 덕분에 야만적 권력인 일본 제국주의는 대한민국에서 물러갔다고, 우린 잊지 않고 다음 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정말이지 객석에서 하늘까지 소리치고 싶은 기분이었다. 

인물로 보는 함양 독립운동사 개관

편집부

함양은 덕유산 남쪽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 지리산 천왕봉이 산청군과 경계에 솟아 있고, 우리나라 3대 계곡의 하나인 칠선계곡, 벽소령과 백무동계곡이 함양에 속한다. 함양 하면 사람들은 지리산부터 떠올린다. 지리산은 한반도 남부에서 가장 넓고 높은 산이다. 이런 지세(地勢)를 반영하듯, 통일신라 때 함양은 천령(天嶺)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우리나라 유학의 비조(鼻祖)라 할 수 있는 고운(孤雲) 최치원이 중국에서 돌아와 천령군수를 지냈다. 관광객들이 함양을 찾으면 꼭 찾는 상림은 최치원이 천령군수 시절에 홍수를 막고자 조성한 숲이다. 최치원이 붙인 이름은 대관림(大館林)이었는데, 후대의 물난리 통에 반으로 쪼개져 현재는 윗부분만 남아 상림(上林)이 됐다. 함양은 고려 때 지어진 지명이다.

조선시대에 역대 함양군수 명단에는 유명한 선비들이 많다. 성리학의 수령 김종직(金宗直), 《열하일기(熱河日記)》를 쓴 박지원(朴趾源)도 있다. 박지원은 안의현감이었는데, 안의(安義)는 1895년 안의군이 되었다가, 1914년 절반이 함양으로 합쳐졌다. 조선의 사대부들이 '동방 5현'의 1인으로 추앙한 정여창(鄭汝昌)도 함양 출신이

다. 함양은 선비의 고을이었고, 그래서 위정척사론에 기반한 의병항쟁이 일찍 태동했다.

진주성을 탈환한 노응규 '덕유산 호랑이' 문태서

노응규(盧應奎, 1851~1907) 의병장은 위정척사의 분류인 노론 계열 인사들에게 배웠다. 창(倡)의(倡義) 직후 올린 상소에서 그는 자신이 최익현의 제자라고 밝혔고, 그가 이끈 의병대의 주요 인물들 역시 노론 계열이었다. 왕비가 왜놈 낭인들에게 시해당하고 단발령이 공포되자, 노응규 의병장은 안의에서 거병, 진주성을 탈환하고 진



노응규 의병장 생가

주부(晉州府)를 장악했다.

청일전쟁 와중이고 아관파천이 일어나기 전이었으므로, 진주성은 사실상 일본군 손아귀에 있었다. 진주성 탈환(일제에게는 진주성 함락) 소식은 일본 아사히신문도 보도했다고 한다. 부(府), 요즘으로 말하면 도청소재지를 의병이 장악한 승리는 이것이 유일하다. 기세를 올린 의병들은 김해를 공략하며 부산으로 진격해 구포 앞 나루터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한 뒤 진주로 돌아왔다.

노응규 의병장은 고종이 관직을 내리자 도끼를 메고 궐내에 들어가 직접 상소를 올렸다. 이를 지부자현소(持斧自現疏)라 한다. 이후 그는 을사늑약 당시 동궁 시종관으로서 고종 곁을 지켰고, 최익현이 전북 태인에서 거병하자 합류했다. 최익현이 고종의 명으로 의병을 해산한 뒤에도 노응규 의병장은 계속 싸우려 했으나, 밀정의 신고로 붙들려 서울로 압송돼 옥사했다. 정부는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문태서(文泰瑞, 1880~1913) 의병장은 1907년 대한제국군 해산 직후 덕유산으로 들어가 산포수들을 규합, 무주지역의 의병들과 합세해 항쟁에 나섰다. 문태서 의병장은 의병대에 '호남의병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의병 전원의 추대로 총참모지휘장을 맡았다. '호남의병단'은 1908년 초부터 1909년 말까지 일본군과 수십 차례 교전을 벌이며, 전장을 서부 경남과 충북으로 넓혔다.

거병의 주력이 산포수들이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문태서 부대의 전투교리는 유격전이

었다. 1908년 10월 30일에는 경부선 이원역(충북 옥천 소재)을 방화하고 일본군 3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곳곳에서 일본군을 사살하고 총기를 탈취했다. 신출귀몰한 문태서 의병장의 활약에 민중은 '덕유산의 호랑이'라는 자랑스러운 별명을 붙여주고, 공덕비를 세웠다(이 공덕비는 뒷날 일제에 의해 철거됐다).

일제의 '남한대토벌작전'에 굴하지 않고 항일전쟁을 전개하던 문태서 의병장은, 경술국치 이후 안팎의 정세가 악화되자 부대를 더 소규모로 나눠 유격전을 계속했다. 1912년 8월, 문태서 의병장은 일본군에 체포됐고, 1913년 옥중에서 자결했다. 정부는 1970년 건국공로훈장을 추서했다.



문태서 의병장 기공비

함양장터와 안의장터의 3·1만세운동

함양의 3·1운동은 함양장터와 안의장터에서 각각 일어났다. 안의가 함양과 합쳐지고 불과 5년 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당시 교통 사정으로는 한 곳에서 뭉친다는 건 불가능했다. 함양군청과 안의면사무소는 오늘날 자동차로 달려도 20분 이상이 걸린다.

함양장터 만세운동은 정순길(鄭淳吉)·윤보현(尹普鉉)·정순귀(鄭淳貴)·노경식(盧璟植) 등이 주도했다. 이들은 함양읍 장날에 거사하기로 결의한 뒤, 동지를 모았다. 3월 28일 함양장날, 이들은 장터에 모인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일제 군경이 몰려와 총검



만세운동을 재현한 함양 군민들의 거리 행진

을 휘두르며 주동 인물들을 연행하자, 격분한 김한익(金漢益) 등은 다음 장날인 4월 2일 3천여 명의 장꾼들과 다시 만세운동을 벌였다. 일제 헌병의 총탄에 하승현(河昇鉉)이 즉사하고, 하승현의 부친 하재연과 하재익, 운영하가 쓰러졌다.

안의장터 만세운동의 주역은 전병창(全炳昌)·임채상(林采尙)·정순완(鄭淳完)·전재식(全栽植)·조제현(趙濟憲)·김채호(金采鎬)·최석룡(崔碩龍) 등이다. 3월 31일, 안의 장날 오후 1시경 장터 한복판에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만세를 부르려는 순간, 일경이 주동자들을 모두 체포하자 성난 군중이 주재소로 돌진했고, 일제는 인근 거창의 일본군 수비대로부터 지원군을 받고서야 만세운동을 저지할 수 있었다.

3·1운동으로 함양에서는 사망자 3명, 부상자 12명, 투옥자 20명 그리고 안의에서는 사망자 6명, 부상자 15명이 나왔다. 이외에도 수십 명이 왜경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많은 고초를 겪었다(이상 《향토문화전자대전》 발췌).

함양 신간회 운동의 리더, 양지환

1927년 창립한 신간회는 민족주의 계열과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모아 꾸렸던 일제강점기 국내 최대의 독립운동단체이다. 함양 신간회 운동의 중심에는 양지환(梁址煥, 1888~1964) 선생이 있다. 일본 메이지대학 법학부를 졸업한 양지환 선생은 1920년 함양청년회를 조직해 초대 회장으로서는 항일운동과 농촌



양지환 선생은 몽양의 지지자이기도 했다

계몽운동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신간회 함양지회장으로 활동했다. 신간회 함양지회의 모태는 함양청년회이고, 주요 인물은 최성준(崔性準)·김성규(金性圭)·조경우(曹景祐)·김용택(金容宅)·노장한(盧章漢)·한정희(韓廷熙) 등이다.

양지환 선생은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함양군위원회를 조직하는 데도 힘을 보탤고(상무위원장 역임),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하자 상경해 경교장에서 백범 김구 주석을 모셨다고 한다. 가재(家財)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내놓는가 하면, 함양보통학교 교실 증축비를 모금해 기부하기도 한 양지환 선생은 생전에 당신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백범 서거 뒤 낙향한 그는 한국전쟁 때 부산으로 이주, 동아대학교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하준수와 보광당

함양의 독립운동을 말하면서, 하준수(河準洙) (1921~1955)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전쟁 시기 빨치산 사령관 '남도부'라는 이명으로 더

유명한 하준수는 함양군 병곡면 출신이다. 진주중학교(현 진주고등학교) 3학년 때 일본인 교사를 때려 퇴학당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던 그는, 일제의 학도병



하준수

동원령에 반발해 지리산을 거점으로 학병 거부자들을 이끌고 항일무장투쟁을 벌인다. 소설가 이병주의 《지리산》은 지리산 시절 하준수가 조직한 항일조직 '보광당(普光黨)'을 소재로 쓰인 픽션이다.

한국전쟁 이후 그는 오랫동안 입에 올릴 수 없던, 봉인된 이름이었다. 누구보다 견결히 일제에 맞서 싸우다가, 이념의 전사가 되어 동포의 손에 사형당한 하준수. 어쩌면 그의 일대기는 우리 현대사의 질곡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독립의 길은 아직 멀다. 



함양 백무동 운해

『여성독립운동가 열전(근대한국학 대중 총서 4)』

• 지은이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 • 출판사 : 세창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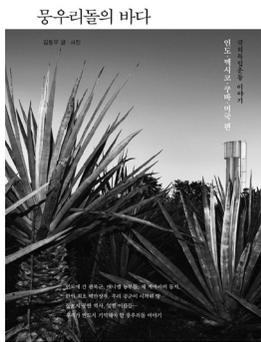
최전선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지탱해 온 여성들의 활약 그동안 알려지지 않고 기억되지 않았던 11인의 여성독립운동가의 삶을 재조명한다

이 책은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와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책이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고 기억되지 않았던 여성독립운동가 11인의 삶을 재조명했다. 근대한국학 대중 총서 프로젝트를 이끈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의 심옥주 소장은 오랫동안 여성독립운동가의 삶과 역사를 연구하고 발굴해왔다. 여성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외면받지 않게 하고, 여성독립운동가들이 남성독립운동가의 조력자에 그치지 않고 항일투쟁 최전선에서 한국 독립운동을 지탱해왔음을 재조명했다.

저서에서 재조명한 여성독립운동가는 윤희순, 남자현, 차미리사, 어윤희, 이해련, 김알렉산드라, 고수선, 정정화, 권기욱, 유관순, 박차정으로 총 11명이다. 심옥주 소장을 포함한 집필진은 이 11명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이 각 분야에서 항일투쟁에 앞장섰던 모습을 재조명해 여성독립운동가들을 한국 독립운동사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옮기고자 했다.

『몽우리들의 바다』

• 지은이 : 김동우 | • 출판사 : 수오서재



인도의 한국광복군, 애니깽 농부들, 체 게바라의 동지 당신이 들어보지 못한 바다 건너 독립운동 이야기

《몽우리들의 바다》는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의 흔적을 발굴하고 기록한 최초의 다큐멘터리다. 작가는 세계일주를 하던 중 인도 델리 레드 포트에서 우연히 그 장소가 한국광복군의 훈련지였음을 알게 되고 저술 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를 시작했다.

작가는 독립기념관 자료를 샅샅이 뒤져 주소 한 줄, 사진 한 장으로만 남은 국외독립운동사적지를 찾아다녔다. 2017년부터 카메라와 배낭을 메고 수차례 비행기에 올라 사라져가는 역사의 현장과 그곳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을 사진과 글로 남겼다. 인도에서 시작된 우연이 멕시코, 쿠바, 미국, 러시아,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일본 등 10개국을 돌아다니며 조사한 내용을 책으로 옮겼는데, 이 책은 그중 바다를 건너 인도, 멕시코, 쿠바, 미국으로 간 한인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다뤘다.

저자가 조사하면서 발견한 독립운동에 투신한 재외한인을 위한 독립을 위해 끼여 일생을 바친 '몽우리들'이라고 부른다. '몽우리들'은 둥글둥글하게 생긴 큰 돌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는 이 말은 김구의 《백범일지》에 독립운동 정신의 상징으로 나온다.

이 책은 부실했던 국외독립운동 자료를 수집, 축적했다는 점에서 사료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크다. 멕시코 한인 디아스포라의 시작점인 '살리나크루스 해변', 안창호가 멕시코 순방 당시 머물렀던 '프란세스 호텔', 한인들이 일했던 애니깽 농장들, 독립운동가들의 묘소, 쿠바 대한인국민회 회관으로 쓰였던 건물, 친일파 미국인을 처단한 '샌프란시스코 페리 부두', 3·1혁명 2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던 뉴욕의 '타운 홀' 등 주요 역사 현장을 직접 답사해 현재의 모습을 온전히 담았다.

『하란사』

• 지은이 : 권비영 | • 출판사 : 특별한서재



“애정하면 못할 것이 없다. 애국도 그러한 것이다. 이 땅을 애정하기에 애국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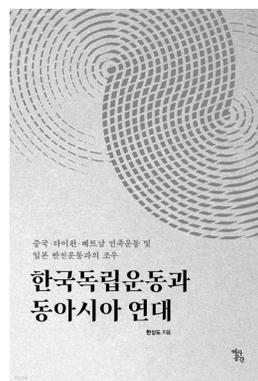
《하란사》는 권비영 작가의 밀리언셀러 《덕혜옹주》 이후, 그녀가 들려주는 또 다른 여성의 이야기다. 유관순 열사의 스승이자 독립운동가 하란사(김란사)의 여정을 담은 소설이다.

《하란사》는 최초의 여성 유학생으로 자신이 배운 것을 토대 삼아 계몽 운동을 벌였던 독립운동가 하란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당시의 독립운동은 비단 신분이 높거나 나랏일을 하는 이들만의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국난에 가족을 잃어버리고 배를 훔다가 도둑질을 하던 소년, 임금이 능행길 중 머무르던 화성행궁에 성병 검사소를 차린 일제에 반발해 만세를 외친 기생들, 평범하게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거나 다리 밑 거지들을 돕는 아낙 등 소설에 등장하는 평범한 민초들도 모두 독립을 향한 열망을 가슴에 품고 있다. 《하란사》는 특별한 이들이 아닌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평범한 이들의 이야기이기에 더욱 의미 있다.

교육 계몽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하란사의 일대기를 통해 잊혀왔던 여성 독립운동가를 기억하고, 나라의 위기를 이겨내고자 힘쓴 그 시대 독립운동의 조용한 불꽃을 느낄 수 있다. 《하란사》는 사실에 기반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일생에 소설적 상상력을 더해 독자에게 몰입감을 선사한다.

『한국독립운동과 동아시아 연대』

• 지은이 : 한상도 | • 출판사 : 역사공간



동아시아 반일·반제 연대투쟁으로서 한국독립운동과 동아시아 연대의 의의

일제침략기 한·중 양 민족 간에는 항일에 뜻을 모은 연대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유럽 제국주의국가들의 식민지가 된 동남아시아 민족운동세력의 일부가 중국 대륙을 피신처로 삼으면서, 중국 대륙 내 한인독립운동가들은 동아시아 반제·반일 민족운동가들과 조우하게 되었다. '반제'·'반파시즘'·'반일'을 공통분모로 한 이들의 활동은 중국 항일전쟁 역량의 한 부분으로, 중국의 승리를 통해 자기 민족의 해방을 이루고자 했다. 동아시아 피압박민족과 반제·반파시즘의 가치를 지향했던 제국주의 및 파시즘 체제 내 시민사회는 반패권·반강권·반침략의 가치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가치는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지향이라 할 것이다.

이 책은 일제침략기 중국대륙을 무대로 전개된 한인독립운동과 중국·타이완·베트남 민족운동과의 관계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해 동아시아 근대사의 일부로서 한인독립운동의 일면을 담았다. 한국독립운동을 '동아시아 연대'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접근은, '저항적 민족주의'의 강렬한 표현에 치중하는 항일독립운동 연구의 단선적인 이해를 극복하고, 독립운동가들이 지향했던 열린 민족주의의 실태를 풀어가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이 책을 통해 독립운동가 동아시아 민족운동세력과의 연대 사실이 갖는 현재적 의미와 교훈을 꼼꼼히 보고, 나아가 한국사회가 열어야 할 동아시아 연대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독립정신에 걸맞은 효창원 논의가 필요하다

최 범 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제2기 청년위원



효창공원(용산구)

임시정부 요인들이 직접 조성하고 문헌 효창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이 배어있는 곳이다.

해방 후에도 권력을 이어간 반민족행위자들에게 효창원은 눈엣가시였다. 해서, 묘역 앞에 운동장을 지었다. 친일청산이 제때 이뤄졌다면, 운동장이 지금 위치에 지어질 일은 애초에 없었다. 효창원의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는 의미를 넘어서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국가의 정통을 바로잡는 일이다.

효창운동장이 지금 위치에 있는 게 문제다

지금 한국사회는 운동장을 존치한 효창원 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다. 2019년 4월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서울시, 용산구가 공론화한 효창원 재구

조화는 처음부터 운동장 존치를 결정한 채 시작했다. 당시를 보도한 언론사 기사와 서울시 보도 자료 등에 따르면 “운동장 담장이 묘역을 가리지 않게 조성한다”라고 말한다.

운동장 담장을 허물어 공원과 어우러지게 조성하면, 정말로 ‘청산하지 못한 일제부역자들이 묘역을 편취하기 위해 운동장을 악용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는가? 담장이 묘역을 가리는 게 문제의 본질인가, 운동장이 지금 위치에 있는 자체가 문제인가.

이어서 “효창운동장의 청소년구장 기능은 유지한다”라고 말한다. 효창운동장은 청소년 경기장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성인들도 체육활동을 가진다. 운동장을 위탁운영 중인 서울시 축구협회에 따르면 연간 최대 2천 경기 가량이 열린다. 효창운동장은 시공간이 뒤틀려 있어 이곳에서 체육활동을 하면 모두 청소년이 되는 것인가? 청소년구장이라고 정의내린 이는 누구며, 왜 그런가.

효창원 재구조화에 관한 지금껏 효창운동장 논의는 수궁할만한 진단도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지도 못한다. 효창원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효창원이 오늘날까

지 갈등을 겪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효창운동장인데 우리 사회는 운동장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채 효창원 재구조화 논의를 시작했다.

석주 이상룡의 생가 안동 임청각(보물 128호) 사례를 보자. 일제가 철로를 놓아 훼손한 임청각 복원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이 안동역을 새로운 곳에 짓고 기존 철로를 철거함으로써 가능했다. 임청각이 보물이란 이유로 문화재청이 나서면 철길을 없앨 수 있는가? 없다. 효창원도 마찬가지다. 임청각 복원 이전에 철길을 먼저 논했듯이, 효창원 역시 독립운동가 묘역에 앞서 운동장을 논해야 한다. 지금의 효창원은 독립운동가 묘역 1단계에 앞서 운동장 0단계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이를 담당할 정부 관계부처를 굳이 특정해 본다면, 국가보훈처와 문화재청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더 적합하다.

문화체육계의 일제잔재, 효창운동장

우리가 운동장 내지 경기장으로 번역하는 문화체육시설 스타디움(Stadium)은 한 나라의 시대를 맥락으로 품는다. 제1회 월드컵을 개최한 우루과이의 스타디움 이름은 센테나리오인데, 제헌 100주년을 기념한다. 벨기에 역시 자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보두앵 국왕 경기장을 지었다.

대한민국의 운동장 역사는 어땠는가. 지금은

철거된 서울의 첫 번째 운동장, 동대문운동장 공식 명칭은 동궁전하어성혼기념 경성운동장(東宮殿下御成婚記念 京城運動場)이었다. 히로히토 일왕 결혼을 기념한다는 뜻이다. 남산자락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던 조선신궁과 함께 1925년 10월 15일 개장했다. 동대문운동장 개장 첫 경기가 조선신궁경기대회인 배경이다. 이보다 보름 앞선 9월 30일에는 경성역(서울역)이 도쿄역을 잇는 동양 제2 규모로 문을 열었다.

근대 인프라가 식민지배와 하나 돼 생겨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조선체육회(대한체육회)는 경성운동장 개장일에 맞춰 배재고보 운동장에서 제6회 전조선야구대회(10월 15~17일)를 열었다. 운동장을 애써 외면한 것이다. 대한민국 운동장 역사의 출발이 이랬다. 일왕 결혼을 기념하며, 조선신궁 개장을 축하하며, 이를 못 본 체하며 시작한 문화체육계의 일제잔재가 효창원 독립운동가 묘역 앞에 ‘효창운동장 입지’로 남아있다.

이를 청산하기 위해 운동장에 얽힌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서울은 하계올림픽과 FIFA 월드컵 축구대회를 모두 개최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도시다. 국제대회 유치경험이 너무나 강렬했던지, 우리 사회는 ‘올림픽은 잠실, 월드컵은 상암’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 런던, 파리, 로마, 베를린에는 하계올림픽과 FIFA 월드컵을 모두 개최한 운동장이 있다. 국제대회는 운동장에서 가진 일정시기의 경험일 뿐 운동장 자체를 정의할 수 없다.

전쟁이 만든 폐허 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급속히 이뤄낸 경험이 운동장과 국제대회를 동
일시하게 만들었다. 소위 선진국을 따라가기 바
빳던 우리에게 올림픽과 월드컵 유치는 그간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성과를 인정받으며 우리 사
회가 스스로 수여하는 훈장 같았다.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사례는 이를 보여
준다. 그는 올림픽을 유치하려 개발도상국 IOC
위원들에게 “개발도상국도 올림픽을 치를 수 있
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설득했다. 국제대회
유치가 당시 대한민국에 갖는 의미였다.

운동장의 본질은 ‘문화’

효창운동장을 축구장으로만 인식하는 것도 마
찬가지다. 운영실태만 보고 현상을 말할 뿐이다.
국제대회유치 경험, 이용실태가 아니라 문화체
육시설이라는 ‘운동장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
다. 그래야 효창원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갈 수
있다.

1940년대 일제의 태평양전쟁 시기를 감안하
면, 그간 대한민국 서울의 운동장은 짝수 년대
(동대문 1925, 전쟁기 1940, 효창 1960, 잠실
1984, 상암 2001)마다 지어졌다. 이에 따르면
지금의 2020년대는 다시 맞이한 건축주기다. 실
제로 서울시는 효창운동장과 잠실운동장 재건축
을 각각 논의 중이다. 지금처럼 경험과 현상만
보며 두 운동장을 따로 생각할 게 아니다. 앞선
해외사례처럼 자국의 시대를 맥락으로 하는, 문
화체육시설 운동장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고민해

야 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 한국사회는 국가의 정통을
뒤흔드는 건국절 논란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 논
란이 종식된 게 2017년, 대한민국 98년 되던 해
다. 조금만 늦었다면 국가의 100년 역사도 제대
로 기념하지 못할 뻔했던 게 우리 모습이었다.
바로 선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 위에서, 이제 문
화체육시설 운동장 100년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래야 효창원 묘역을 편혜하는 일제잔재,
‘효창운동장 입지’를 청산할 수 있다. 이는 옷감
을 만들기 위해 씨실과 날실이 모두 있어야 함과
같다.

불가능에 도전해 가능을 창조한 독립정신은 오
늘날 대한민국의 뿌리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무
모한 일에 도전해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동료
를 잃고,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뜻을 포기
하지 않은 이들이 효창원에 묻혀 있다. 우리 후
손들이 효창원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며 존경하는
이유다. 이와 달리 한때 독립운동에 몸담았던 민
족대표 지식인 일부는 불가능하다며, 실력이 없
다며 현실과 타협했고 변절했다. 바른길을 걷지
못했다.

한국사회에 운동장 건축주기가 다시 찾아왔다.
우리 사회는 이번 주기에 효창원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묘역을 편
혜한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불가능·타협
의 효창원이 아니라, 도전·창조의 독립정신이
배어있는 효창원 조성 논의가 필요하다. 

**7월 2일, 료범 나창헌 선생 어록비 제막
나중화 조선민족대동단 부회장 참석**



7월 2일, 료범 나창헌 선생 어록비 제막식이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료범 나창헌 선생
은 경성의전 재학 중 3·1운동을 주도하며 독
립운동의 길에 뛰어드셨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청년외교단, 조선민족대동단 등을 중심으로 독
립운동에 힘을 쓰셨으며, 조선민족대동단 단원
으로 의친왕 이강의 망명 계획에 참여하나 실패
했습니다. 이후 상해로 망명, 철혈단을 조직하
고 의열투쟁의 길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셨습니
다. 료범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이후 임
시의정원 의원, 임시정부 경무국장, 내무부 차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독립기념관 어록비 공원에 세워진 료범 나창헌
선생의 어록비에는 선생께서 몸담았던 <병인의
용대창립선서>가 새겨져 있습니다. 병인의용
대는 일제의 주요 식민통치 기관 파괴, 일제 관
리 및 밀정 처단 등의 의열투쟁 방략으로 활동한

단체입니다. 어록비에 새겨진 내용은 다음과 같
습니다.

의혈(義血)이 가슴에 가득 찬 기력이 강장한
청년동지들이여 오라, 전진하라.
우리들은 호무선궁(好武善弓)하였던
강용한 민족이다
검두에 선혈을 묻히고 신비의 묘경을 개척한
역사적 유훈을 체험하여 오직 흑철(黑鐵)과
적혈(赤血)로써 성국(盛國)의 기업을
대정(大定)하라

- 1926년 2월 12일 병인의용대 창립선언서에서 -

이날 제막식에는 료범 나창헌 선생의 아드님인
나중화 조선민족대동단기념사업회 부회장께서
참석하셨고,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무국도 참여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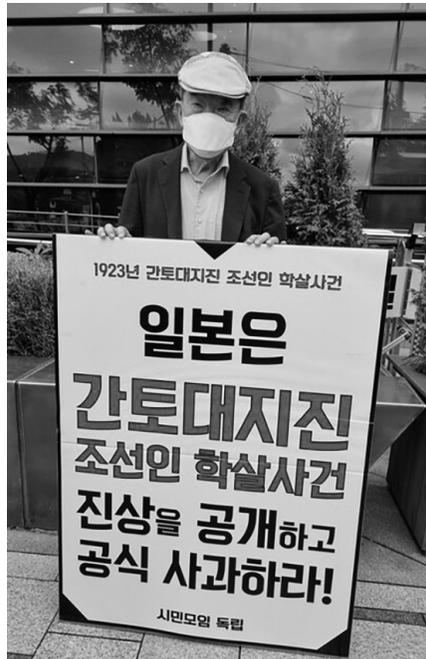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일본은 사과하라!”
이만열 교수, 박덕진 <독립정신> 편집위원 등
릴레이 1인시위 나서**

본회 박덕진 <독립정신> 편집위원이 ‘시민모임
독립’으로 8월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
위를 진행합니다. 박 위원은 1923년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의 진상조사와 사과
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기획해 왔습니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일대에서 대지진이 일어난 상
황에서 일제는 유언비어를 빌미로 소위 ‘자경단’

을 동원해 상당수의 조선인을 학살했습니다.

이 학살사건은 일본군의 난징대학살이나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제노사이드 범죄가 분명하나 희생자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외면받았습니다. 이에 박 위원은 이만열 교수 등 사회 각계 원로 및 시민들과 함께 8월 한 달 평일 낮 1시간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이 주도하는 ‘시민모임 독립’은 1인시위를 넘어 <한겨레> 기사를 통해 국회의원과 협력해 진상규명과 추모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학술토론회, 사건발생일인 9월 1일의 국가추모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선비의 결단에서 리더의 자질을 묻는다”
본회 정만기 이사, 고창에서 광복절 기념사



본회 정만기 이사님께서 고창군과 고창독립유공자유족회가 진행한 제76주년 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기념사를 발표하셨습니다. 정 이사님께서 이날 기념사를 통해 공동체의 이익과 공익, 사익이라는 주제를 놓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고창의 독립유공자 96분 가운데 대다수가 양반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선비(양반)의 일제에 대한 항거에 일제는 호남대토벌작전을 벌여 선비집단 학살로 조선침략을 완수하였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선비들의 이러한 공동체 정신, 공익을 위한 행동의 동력은 엄청난 결단”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득 앞에 망설일 수밖에 없지만 선비들은 리더로서 거침없이 공동체와 공익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린다”는 말씀입니다. 이사님은 이번 광복절 기념사에서 선비의 모습을 통한 리더의 자질을 묻는 마무리로 발표를 마치셨습니다.

김란사 탄생 150주년 기념특별전
김수빈 본회 청년위원 작품 전시



임정기념사업회 1기 청년위원 김수빈 위원님의 작품이 전시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서울교육박물관에서 2021년 8월 13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 전시되는 독립운동가 김란사 탄생 150주년 기념 특별전 <내가 선택한 삶이 아름답기를> 전시회에 김수빈 위원이 제작한 김란사의 방이 전시됐습니다. 이 작품은 김란사 지사가 활동하던 당시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언대학 기숙사 ‘모네트홀’에 얹은 지사를 찍은 사진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김란사 지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미국 문학사를 취득하고 모교인 이화학당에서 유관순 열사 등 학생들에게 독립의식을 심어준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로, 여성 교육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한 삶을 사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김수빈 위원을 포함한 26명의 작가가 참여했고, 현대적인 시선으로 김란사 지사의 생애와 활동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
배성호 회원, 기림비 사진 본회 회원들과 공유

본 회 배성호 회원이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남산을 방문해 기림비와 기억의 터 사진을 찍어 회원분들과 공유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매년 8월 14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국가기념일입니다.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께서 1991년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하신 날입니다. 김 할머니의 증언 이후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인권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배성호 회원은 사진을 공유하며 김학순 할머니께서 용기 내어 진실을 열어간 소중한 오늘의 역사를 새기고 기림의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소감을 남겨 주셨습니다.



차병혁의 3·1운동과 서대문형무소 수감 ④9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초등학교 진입로에는 '화성3·1운동만세길 방문자센터'가 있다. 경기도 화성시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이 센터를 중심으로 1919년 당시 3·1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던 독립운동가 생가를 비롯한 유허지 15곳을 연결하여 31km에 이르는 '화성 3·1운동만세길'을 만들어 공개하였다. 방문자센터 기준 약 5km 떨어진 석포리에는 1919년 당시 이곳에서 3·1독립만세운동을 이끈 차병혁(車炳赫, 1889~1967) 지사의 생가가 남아 있다. 이 집은 화성지역 독립운동가의 생가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으로 차병혁 지사는 해방

이후에도 이곳에서 생활하였다.

1919년 3월 1일 이후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조선독립시위운동이 일어났을 때, 경기도 수원군 장안면과 우정면에서도 4월 2일 밤 산에서 횃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부르는 시위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때 차병혁 지사도 조선독립을 희망하여 대중을 모아 장안면과 우정면 면사무소 그리고 화수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였다.

다음날 4월 3일 오전에는 면민들에게 어은리에 있는 장안면사무소로 몽둥이를 가지고 집합할 것을 통지하고, 먼저 장안면사무소로 가서 면장인 김현묵에게 속히 사무를 중지하고 나와



서 만세시위를 함께할 것을 권유하며, 동의하게 하였다. 당시 시위에 동참한 차희식, 장소진, 김홍식, 장제덕은 스스로 그리고 사람을 시켜 같은 취지를 면민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장안면사무소에는 200여 명의 군중이 집합하였는데 대다수가 손에는 몽둥이를 갖고 있었다. 면장 김현묵은 군중들에게 조선독립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의 연설로 군중을 격려했다. 군중은 바로 독립 만세를 부르며 곤봉과 돌로써 장안면사무소 일부를 파괴하고, 비치된 서류와 집기를 부수고 인근 쌍봉산에 올라 독립 만세를 연호하였다. 이에 더 많은 군중이 가세하여 천여 명의 대집단이 되었다.

오후 3시경 차병혁 지사를 비롯한 군중들은 우정면사무소로 이동하여 역시 돌과 몽둥이로 우정면사무소 일부를 파괴하고, 우정면사무소에 비치된 서류, 집기류를 부수고, 한각리를 거쳐 화수리로 향하였다. 오후 5시경 화수리 화수경찰관 주재소에 이르렀을 때는 군중은 더욱 증가하여 2천여 명에 달하였다. 군중은 돌을 던지고, 곤봉을 휘두른 끝에 주재소 건물을 불태웠다. 시위대는 당시 근무하고 있던 순사 가와바다 도요타로(川端豊太郎)를 곤봉과 돌로써 참혹하게 죽였다.

이 시위대의 주동자는 차병혁이었으며, 김현묵, 차희식, 장소진, 김홍식, 장제덕은 군중을 지휘하고, 술선하여 세를 도왔다. 이로 인해 일제에 체포된 차병혁 지사는 보안법 위반, 소요, 살

인, 방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총 3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그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그의 수형기록표에는 수감 당시 촬영된 사진이 있다. 세수도 못하고 매우 초췌한 얼굴에 덩수룩한 머리 카락과 지저분하게 난 수염이 고된 수감생활을 대변하는 듯하다.

일제는 면사무소가 파괴되고, 불에 타고, 순사가 죽는 최악의 상황이었음에도 차병혁 지사에게 면사무소 및 화수경찰관 주재소의 사무를 집행할 수 없게 하는 시위운동에 그쳤고, 특별히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행한 것이 아니라는 상황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당시 전국 각 지역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운동의 기세를 일제가 쉽게 억누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더 무거운 형량으로 판결하였을 경우 한국인들의 거센 저항과 식민지 지배체제의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에 화성3·1독립만세운동은 단순히 지역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만세운동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독립에 대한 우리의 열망과 이에 대응하는 일제의 입장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라 할 것이다. ④9

대한민국의 뿌리는 독립운동입니다
존경과 감사,
그리고 다짐의 이야기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9 772586 469007 09
ISSN 2586-4696